



湖南新聞



1946년 3월 창간 제 2436호

이메일 : ihonam@naver.com

홈페이지

NAVER

호남신문

검색

2018년 1월 26일 (음력 12월 10일) 금요일

“국민 1인당 하루 쌀밥 두 공기도 안먹는다”

통계청, 쌀 소비량 역대 최소...27년 연속 최저치 경신

보리 등 기타양곡 5년 만에 줄어...年 1인 소비량 9.1kg

우리나라 국민이 1인당 섭취하는 쌀 소비량이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 밥 한 공기(80~100g)를 감안하면 하루 두 공기도 안 먹는 셈이다.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양곡소비량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 한 사람의 하루 평균 쌀 소비량은 169.3g으로 1년 전(169.6g)보다 0.3g(0.2%) 감소했다.

1인당 하루 쌀 소비량은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64년 이래 가장 적다. 통계 작성 이래 쌀 소비가 가장 많았던 1970년(373.7g)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밥 한 공기(80~100g)에 들어가는 점을 고려하면 국민 한 사람이 하루에 한 공기 반 가량 먹는 셈이다.

하루 쌀 소비량이 줄면서 국민 한 사람의 연간 쌀 소비량도 역대 최저치를 새로 썼다. 지난해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61.8kg으로 1년 전보다 0.1kg(0.2%) 감소했다.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1990년부터 27년 연속 최저치 기록을 갈아치고 있다.

보리쌀·밀가루·잡곡류·두류(콩)와 같은 기타양곡의 소비량은 5년 만에 줄었다. 국민 한 사람의 연간 기타양곡 소비량은 9.1kg으로 1년 전보다 0.2kg(2.2%) 감소했다.

1인당 기타양곡 소비량은 2011년 7.4kg에서 2012년 7.3kg으로 줄었다가 2013년 8.1kg으로 늘어난 뒤 4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왔다.

기타양곡별 소비량은 농가 생산량에 영향을 받는 보리쌀(1.4→1.3kg)과 두류(2.6→2.2kg)는 감소한 반면 잡곡(1.2→1.4kg)과 서류(2.8→3.0kg)는 증가했다. 밀가루는 1.2kg 소비돼 1년 전과 같았다.

김진 통계청 농어업통계과장은 “그 해 생산량 감소로 가격이 비싸진 보리쌀과 두류는 덜 소비한 반면 몸에 좋은 잡곡을 찾는 소비자는 꾸준히 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1인당 연간 양곡(쌀+기타양곡) 소비량은 총 70.9kg이었다. 쌀과 기타양곡 소비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87.2%.



12.8%였다.

1인당 연간 양곡 소비량중 98.0%는 주·부식용으로 소비됐다. 나머지 2.0%는 장류, 떡·과자류 등 기타음식용으로 소비·섭취했다.

지난해 사업체(식료품 및 음료 제조업) 부문에서 제품 원료로 쌀을 사용한 양은 70만7703t이었다. 1년 전보다 4만8834t 더 소비했다.

쌀 소비량은 주정 제조업(21만5803t·

30.5%)이 가장 많았다. 뒤이어 떡류 제조업(16만8865t·23.9%), 도시락 및 식사용 조리식품(11만4341t·16.2%), 탁주 및 약주 제조업(5만6872t·8.0%) 등의 순이었다.

김 과장은 “쌀을 원료로 한 주정 제조업에 정부 비축미를 많이 공급한 결과”라면서 “최근 흰밥과 컵밥 등의 열풍으로 도시락 및 식사용 조리식품에서의 쌀 소비가 늘는 추세”라고 전했다.

뉴시스

광주·전남 한파 절정...어류 폐사·계랑기 동파

4~9m/s 찬바람 더해져 체감온도 영하 13~18도



25일 광주와 전남지역에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지는 최강 한파가 사흘째 이어지며 어류 폐사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 24일 고흥군 도양을 화도지선 가두리양식장에서는 돔 3만 여마리가 폐사, 1억60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한파주의보 이틀째인 광주·전남지역에 동장군이 맹위를 떨치고 있다. 강주위로 어류 폐사와 계랑기 동파 신고

가 잇따랐으며, 일부 도로와 뱃길도 통제 중이다.

25일 광주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곡성 영하 13도, 영광 영하 12.9도, 보성·나주 영하 12.4도, 구례 영하 12.1도, 순천 영하 11.9도, 장성 영하 11.1도, 담양 영하 11도, 광주 영하 10.8도 등을 기록했다.

산간 지역은 지리산 정상재 영하 18.4도, 광주 무등산 영하 17.6도, 광양 백운산 영하 14.2도 등의 분포를 보였다.

당일 오전 최저기온과 다음 날 오전 최저기온이 10도 이상 차이날 때 내려지는 한파주의보도 전남에 이어 광주와 전남 14개 시·군(나주·담양·곡성·구례·장성·화순·보성·순천·장흥·강진·해남·영암·함평·영광)에 계속 발효 중이다.

광주·전남 대부분 지역에 4~9m/s(해상 14m/s 내외)에 이르는 찬바람까지 더해져

체감온도는 5도 가량 낮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의 현재 체감온도는 영하 13도다.

낮 기온도 영하 1도~6도 등 영하권의 분포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이같은 체감온도를 관심·주의·경고·위험 중 가장 높은 단계인 '위험'으로 분류하고 장시간 야외활동을 하면 저체온증과 동상의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어류 폐사와 수도관·계랑기 동파 신고도 이어졌다.

지난 24일 전남 고흥군 도양을 화도지선 가두리양식장에서 돔 3만 여마리가 폐사, 1억60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지난 15일부터 19일 사이에는 여수시 화정면 해상 가두리양식장 6곳에서 돌돔 9만2000여 마리가 폐사, 1억2900만원 상당(복구비 기준)의 피해가 발생했다.

남해수산연구소는 한파 영향에 따른 저수온으로 어류가 폐사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지난 23~24일 광주에서는 수도관·계랑기가 얼어 붙었다는 신고가 4건 접수됐다.

24일에는 광산구 옥동 연립주택 신축공사장과 신창동 모택시회사 정비소의 계랑기가 얼어 붙었으며, 북구의 한 상가 신축공사장에서도 계랑기 동파 피해가 발생했다.

23일 오후 2시45분께에는 동구 장동 7층 규모 상가건물 급수관이 동파돼 지하 기실(200㎡)이 침수됐다.

결빙으로 곡성 구성재 5km, 진도 두목재 3.5km, 구례 성삼재 16km 구간의 도로도 통제 중이다.

뱃길의 경우 55항로 92척 중 12항로의 여객선 13척이 통제되고 있다.

무안·영광·신안에 내려진 대설주의보는 이날 오전 5시까지 해제됐다.

최심적설량은 영광 7.5cm, 무안 7cm, 신안 5.9cm, 목포 2.6cm 등으로, 전남 서부권에 내리고 있는 눈은 이날 오전 중 그치겠다.

이번 추위는 이번 주말까지 이어지겠으며, 당분간 해상의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도 높겠다.

광주기상청 관계자는 “낮 기온도 영하권에 머물러 매우 춥겠다. 가족의 동사, 비닐하우스 작물의 동해, 수도관 동파 등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신봉우 기자



답이 없네

하태경 비례정당 최고위원은 23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과 관련 “뿔쟁이 장사는 흥대표 뿐만 아니라 낮은 보수들의 전유물이었다고 비판했다.

하태경 최고위원은 이날 비례정당 광주시당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설회에서 “흥 대표에게 묻고 싶다. 뿔쟁이 장사가 이제는 절리지도 않느냐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흥 대표는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자마자 주사 파정권이라고 했다며 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주사파 정권에 사회주의 정권이라는 비판을 했는데 (이는) 올 지방선거도 뿔쟁이 몰이로 선거를 치르고자 하는 계산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한민국을 분열시키고 갈등공화국을 만드는 낮은 보수를 광주시민들이 척결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시민들을 비롯한 관련 인사들의 속내를 상상해 본다.

신봉우·자료사진=뉴시스



하태경



홍준표



시민들

광주형일자리는 '기업하기 좋고 일하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 우리의 정책이며 시민과 함께하는 사회혁신운동입니다.

광주형일자리: 기업의 경쟁력과 지속발전,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실현합니다.

광주형일자리: 사회적 함의를 통한 상생과 나눔으로 더불어 사는 광주를 만듭니다.

광주형 일자리

빛그린산단에 '친환경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연계한 「**광주형일자리 선도 모델**」 구축

광주광역시
GWANGJU CITY